

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청렴·안전 다짐

윤 차진형기자 | 승인 2025.03.23 17:36 | 10면

2025년 청렴이행각서 교환·품질·안전 교육 실시



▲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는 지난 20일 지사 대회의실에서 공사감독원 및 현장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청렴이행각서 교환 및 품질·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손영식) 김해양산부산지사(지사장 서정훈)는 지난 20일 지사 대회의실에서 공사감독원 및 현장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청렴이행각서 교환 및 품질·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부패없는 공사현장 문화 정착과 확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

공사감독원과 현장대리인은 청렴이행각서를 상호 교환하며 부패 없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다짐했다. 김해양산부산지사는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투명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청렴문화가 조직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청렴이행각서 교환 후 경남지역본부 주관 품질·안전 교육이 실시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부정책, 건설현장 사고현황 공유 및 예방대책, 시공품질관리, 품질관리 주요개정사항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최근 건설 현장에

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사고 예방 조치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정훈 지사장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안전과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 라며 모든 공사감독과 현장대리인이 한마음으로 청렴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진형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진형기자